



힘차게 밀어올립니다

학교보다 한 살 어린 마흔 다섯 살.
이제 학보도 완숙함을 드러낼 나이가 되었습니다.
종로에서 이문동으로 또, 용인배움터 건립.
80년 종합대학 승격,
98년 뜨거웠던 재단투쟁의 열기...
그 면면한 외대의 역사 속에서
외대학보도 함께 살아 숨쉬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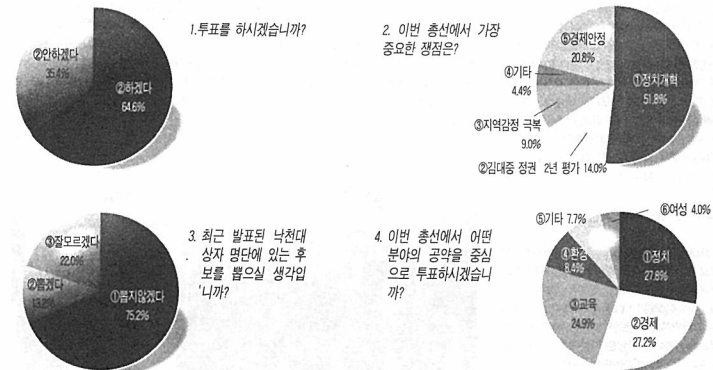
굵은 목판 활자를 하나하나 끼워 맞춰
등사기로 쓱쓱 밀면 신문이 완성되던 그 때,
이제는 그때의 등사기는 없지만,
밤새 찾던 활자 대신 컴퓨터가 들어섰지만,
처음 그 순수와 열정만은 가득 담은 학보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한 장의 신문을 밀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밀어올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총선 설문조사

대학생들 선거관심 저조한 편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에서 학생들의 선거 참여율과 그들이 어떤 점을 쟁점으로 보고 있는지 서울지역 대학 생8665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한 번 알아본다.



대학생들의 투표가 특히 주목 받는 것은 대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지역 감정 등 정치권의 플레이에 얽매지 않고 투표를 하는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4백28명, 안하겠다는 응답은 2백3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도 역시 대학생들의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설문기간이 총선을 불과 10일도 남겨 두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선거구의 후보를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도 많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을 표방한 두 개의 정당이 나왔다.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이 그것이다. 과거 진보당을 표방하고 나왔던 당들이 단 하나의 의석도 얻지 못하고 사라졌던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하면 때 그들의 노력은 크게 현실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20대와 30대의 젊은계층이다. 특히 대학생들은 특정한 정치성향이 없이 자신들의 바람을 한 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지층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다.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 전혀 모른다가 1백명, 모른다가 2백73명으로 3백73명의 응답자가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인지와 잘인지는 응답은 각각 64명과 16명으로 이들 정당에 대한 인지도가 극히 낮다고 나타났다.

그렇다면 투표를 한다면 이들을 찍겠느냐는 질문에서는 3백46명(52%)이 하겠다고 답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조사 나타나는 낮은 인지도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총선을 불과 이틀 남겨둔 지금 애초에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진보정당을 찍을 거라는 이들 정당의 기대는 많이 어긋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한 '2000 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천낙선 명단에 포함된 의원을 찍겠다는 응답자는 12명으로 매우 적

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총선에서 대학생들은 정치분야의 공약을 제대로 내세우는 사람에게 많은 표를 던질 것으로 나타났다. 1백90명(29%)의 학생들이 정치분야를 쟁점으로 삼았다. 또한 경제문제와 교육문제 또한 1백87명과 1백71명으로 비슷한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교육문제와 경제 문제의 경우 최근 사립대학들이 일제히 등록금을 올려 각 대학에서 등록금을 내리기 위해 투쟁하는 등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다고 보인다. 그밖에 응답자들은 환경(38명), 여성(28명) 등의 문제와 기타의견으로 통일이나 인권, 지역발전 등의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쟁점은 정치개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3백53명, 53%)가 답했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낙천낙선 발표 이후 총선연대가 꾸려지는 등 정치개혁을 시민의 힘으로 이뤄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 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번 선거의 쟁점으로 선거를 통한 경제안정(142), 김대중정권의 평가(95명), 지역감정극복(82명), 또 기타의견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의 답이 나왔다.

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최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생들의 투표율을 낮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 그렇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정치개혁의 두가지 흐름은 즉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 기존의 정치권에서 좀 나온 사람을 뽑아보지, 더 나아가 반개혁적이고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 보자는 것과 민주노동당이나 청년진보당과 같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자는 높은 평가와 참여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됐지만 후자의 경우는 낮은 인지도라는 결과가 이후 총선에 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대거린 동부지역 공동기자단



총선 민심기행 - 서울배움터 주위 동대문구

“국민의견 무시하는 정치인들

16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예전의 선거보다 많은 변화를 일으킨 이번 총선에 대해 서울배움터 주변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원집자

“안녕하십니까. 기호 x번 000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6대 총선을 며칠 앞둔 7일(금) 어스름이 깔려 무렵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앞 이문 시장은 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 편에는 선거운동원들이 분주하게 자신들의 후보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었다.

“투표? 찍을 사람이 없는데...”라며 자책식 반찬거리를 서러 내다보는 김경희(38 여)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또 “공약만 번지르르 하지 뽑아주고 나면 하나도 안 지키잖아?”라며 당선을 위한 공약만 내세우는 현 정치권을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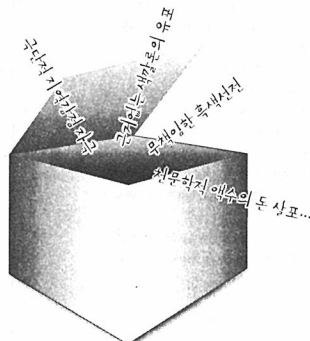
총선시민연대에서 발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과잉기회를 운운하고 있는 김현호(32 남)씨는 “당연히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사람들의 호응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많이 알려지지 않고”라며 “같이 하고 싶은데 기계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웃음을 지었다.

16대 이후 경영하던 공장이 문을 닫아 장사를 하고 있다는 김일중(56 남)씨는 “이번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진짜로 서민들을 위해 정치를 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해”라며 이번 총선에 바라는 점을 말하고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길 한편에서 과일을 리어카에 싣고 행상을 하는 한광선(54 남)씨는 “경제 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뉴스에는 경제가 회복이 되었느니 어찌느니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일에 풀릴하기도 힘들어”라며 하루 벌이 하루 먹고살기도 힘들다고 한다. “재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자기들 잇속이나 챙기지 말고...” 김화상을 하고 있는 이현숙(47 여)씨는 손님과 물건의 가격을 흥정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총선?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대 다 정치인들이끼리 싸움 아니냐? 언젠가는 우리가 뽑아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잖아. 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지 아니냐?”라는 이씨는 총선시민연

4·13총선 마지막 희망은 유권자밖에 없다



4·13총선의 투쟁이 열리자

남고책은 정치의 찌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 밑바닥에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을 잊지 마시다

그 희망은 바로 유권자입니다

민족자주연론
외대학보



50년 선거역사

선거, 민중의 이름으로 한국정치를 심판하라

선거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수많은 '반칙'들이 있다. 넓게는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행각으로부터 좁게는 흑색선전, 비리선거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더 이상 반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진보연진간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낙한낙선운동으로 결집된 민중들의 변혁의지를 모아 반칙사태에 대항을 결고 진정한 민중을 위한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참정권 없는 선거

우리나라 선거역사의 첫 단추는 1948년 5월 10일 미군정 하에서 실시된 제헌회의 선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선거는 해방 직후 미·소의 대립과 한민족 내부의 계급대립이 첨예했던 가운데 민족분단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파행적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남·북 국민 모두가 참여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소리를 배제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우리나라의 선거는 미국의 세력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전국 각지에서 참정권의 유린과 야당 후보와 운동원에 대한 극단적인 탄압이 자행되었다. 이러한 관권에 의한 참정권의 유린은 4월 민주항쟁의 완성이 된 1980년 3·15 부정선거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다. 이승만 정권은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승산이 없음을 판단하고 돈과 권력에 포섭된 유권자 3명이 조를 이루어 기표하는 이른바 '인조 3인조' 등의 부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참정권'이 아니라 '인조'마저 유린당한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전국민적 반독재투쟁인 4·19혁명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중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발판으로 내세우고 국가의 군부세력 및 자본가계급과 긴밀하게 유착한 정부는 권력의 야욕을 멈추지 않았다.

6월항쟁으로 직선제 정취

이러한 참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독재'라고 민주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하여 승리를 장악한 87년 6월 항쟁은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두환 정권은 결국 민중들의 민주화열기에 굴복,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고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40여년간 깊숙히 자리잡은 관권선거의 뿌리를 송두리채 흔들어 놓을 만큼 혁명적인 것이었고 이로 인해 민중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정치활동의 자유화를 개척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정한 민주화는 민중들의 열망만큼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정치적 탄압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으나, 전근대적 이념인 봉당정치를 답습한 지역감정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당시 진보세력으로 평가받던 김대중, 김영삼 세력이 분열됨에 따라 국민들의 민주와 열망은 한층 꺾이고 되고 이 틈을 타 집권에 성공한 노태우 정권은 마치 물줄기 안 돌고거처럼 환개를 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정치독점을 회피하고 나갔다.

변화된 민중들의 선거전략

이처럼 부정부패가 극에 달한 정권 앞에서 국민들의 개혁에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대한 것이었다. 국민들은 부정부패를 막고 지역감정의 조류

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공경선거감시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87년 첫 활동을 시작한 대학생들이 이어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민주화세력을 단결시키려는 목적 아래 공경선거감시활동에 동참하고 89년에는 '공경선거감시협의회(공경협)'를 발족시킨다. 이와 더불어 시민사회에는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정책선거를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96년 '공경국회'라 불릴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여준 정부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만다.

하지만 92년은 정의투쟁, 진보연진투쟁으로 요약되는 민중들의 선거전략에 있어 변혁이 생긴 해이기도 하다. 학생운동세력과 민중들은 선거운동들 유권자관리운동(참여민주주의), 직접적인 선거출마에 따른 운동 등 더 대중적인 것으로 변화시킨다. 이로부터 '선거운동'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를 뛰기 시작했으며, 정당운동으로 진보정당이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홍선시민연대의 의의와 한계

그 뒤 올해 1월 12일 전국 4백여 개 단체가 참여해 발족한 홍선시민연대는 유권자들이 낙선·낙선 운동이라는 적극적인 선거활동을 통해 부패무능정권을 직접 심판하는 등 유권자의 권리를 한층 향상시켰고 이전까지는 비밀문서처럼 취급되었던 정치인들의 사생활정보를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시킴으로써 비도덕적 정치의 정공채를 찢고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촉발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홍선시민연대의 활동 역시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홍선시민연대가 홍선이 끝난 뒤 정치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열망을 하나로 묶어낼 만한 구성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낙선·낙선 운동 이후 진보연진의 활동정향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후보 낙선이후의 구체적 대안의 부재가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낙선·낙선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부패와 무능이 선별의 중요 기준이기는 하지만 진보연진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거와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와 같은 핵심사안들을 낙선·낙선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여전히 미흡한 점으로 남고 있기 때문이다.

참민주화, 민중의 손으로

반세기째 남아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역사, 이제 민주화가 민중 앞에 성큼 다가왔다고 해도 무방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홍선시민연대 이 대표 국장은 현재 상황은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나은 것이 없다며 "우리사회의 고정밀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변하지 않는 정치"의 지체 현상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모든 사회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고 말한다.

민주화는 민중의 품에서 잉태되고 자라난다. 민주화를 만드는 것은 민중이고, 민주화를 지켜내는 것 역시 민중의 몫이다. 다가오는 16대 총선, 민중들의 소박한 힘을 결집시켜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적 문제를 단회하고 참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사취부



필요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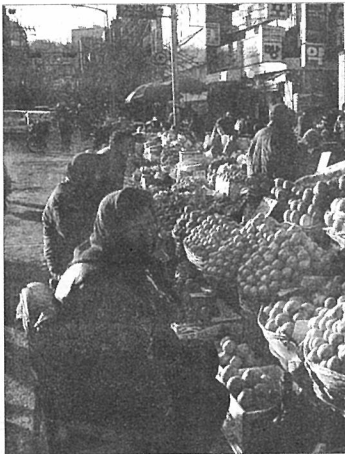
대의 활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홍선시민연대에서 낙선운동을 하는데 난 적극 지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는 없잖아."

"뽑아주면 뭐해. 다 자기를 맛대로 일하는 데, 인제 우리에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있나?"라며 정치인들에게 강한 반감을 나타내는 생신가게를 운영하는 신장숙(53 여)씨. "지난번까지는 그래도 투표는 했는데 이번에는 투표할 생각도 별로 없어. 뭐가 되는 게 있어야지"라며 손님이 고른 생신을 다들었다.

기자가 만나본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번 총선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보여준 정치에 대해 국민들은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다.

홍선시민연대의 낙선낙선운동으로 사괄박적인 16대 총선.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살아버린 정치권에 대한 기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었다.

최호남 기자



공약을 보고 투표해요

"교육재정 6%확보! 동거선 안하고도 공부할 수 있다"

학생이 대학교육을 받을 때 사회에서 받아야 하는 학습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중핵적인 요인이 되는 학습비용을

"이제, 이제 유능하게 화려할 수 있다"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 의탁 불평등한 대우도 이제 그만"

미국에 의탁, 불평등한 대우도 이제 그만. 미국에 의탁, 불평등한 대우도 이제 그만. 미국에 의탁, 불평등한 대우도 이제 그만.

"작자는 애와 나라의 부의 강국이 될 수 있다"

작자는 애와 나라의 부의 강국이 될 수 있다. 작자는 애와 나라의 부의 강국이 될 수 있다. 작자는 애와 나라의 부의 강국이 될 수 있다.

민중자유연
외대학보



예전이나 지금이나
9년 전, 원고미달으로 분주한 학생기자실. 외대학보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은 원고미달 시간에 정신없는 기자들의 모습이다. 이제 사회인이 된 신배동은 "원고미달 때의 아사를 술안주감으로 삼으며 치열했던 청춘을 떠올린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1955년 4월 11일 타블로이드 4페이지로 시작한 1호 신문. '독자에게 영향을 줄 글을 쓰라'는 학장의 인사말이 뒷면에. 그 하단에는 복수대학의 최양현 창시원들 담은 글이 실렸다. 종로 기교사에서 건물 하나를 시작했던 외대를 생각하면 외대의 발전상을 알 수 있다.



개교 14주년이었던 1960년 4월 20일에 발행된 126호부터 한자를 완전폐지하고 한글을 사용했다. 전국 대학신문 중에서 최초로 한글 발행을 시도하면서 독자들에게 더 쉽고 알찬 내용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1980년 5·17 하루전에 신문을 발행한 30호. '본교생 2만명 가두시위, 성토대해'라는 전단 제목을 쓴 이 기사는 군대군대 빈 박동신문으로 남아있다.



계엄사에서 애시안을 내주지 않아 결국 3번 전제를 라동 옮긴지 광고로 매운채 5월 16일 자로 발행해야 했다. 규정보고 원고 한 매 분량 이상의 백지가 있으면 불법으로 되어 있어 할 수 없이 채워넣은 광고였다.

1960년대 4·19혁명에 이어 5·16군사쿠데타, 10월 유신, 한일회담 반대이은 6·3 사태의 정치적인 격변으로 데모와 휴교로 얼룩졌던 전국의 대학교들. 반독재 기치와 애국이 창거하던 시대에 우리 외대학보는 정권직립의 권대를 적지 않는 최강의 대안신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치열한 역사의 현장으로 한 번 가보자.

1955년 편집장 겸 학생회장이었던 손병준(노어과)씨가 학보를 창간할 당시의 편집실은 외대캠퍼스 시절 가교사인 영보빌딩 건너편 지금의 산세제 백화점 뒷골목에 자리잡고 있었다. 당시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4면의 월간으로 발행했다. 개교 1년이 되는 1956년 4월 20일에 발행된 126호부터 한자를 완전 폐지하고 한글을 신문으로 바꾸었다. 이는 일간지, 대학신문 통틀어 전국 최초의 일이었다.

조금 더 대한민국을 질서와 과격으로 끌어안았던 10월 유신. 끊임없이 계속되는 학제, 배교금지 기자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외대학보 산배들은 회고한다. 이 시절 산배들은 관민으로는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통감하고 학생기자실의 문을 열어 장군 채 우산반대를 외치면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산안하기도 했다.

80년 5·17은 대학가의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갔다. 전 대학의 휴교로 본분을 발행할 수 없었음은 물론 '대학신문 기자연합회' 성명서에 서명했던 당시 편집장이었던 최재현(일어, 82년 졸업) 배는 직위를 박탈당하는 상황까지 맞았다. 이런 예까지 못한 상황에서 외대학보는 5·17하루 전에 신문을 발행하는 아슬아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전국 대학신문 중 5·17전까지 마지막을

기록했던 신문이 외대학보이다. 전 민중의 87년 6월 민주주의 열기에 따라 외대학보 역시 권력과 통제의 완화로 보도, 논평의 확대를 이루어 기자들의 편집자유권이 유감없이 확대되었다.

80년 '광도 지면'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이뤄지면서 과장, 퇴폐광공에 대한 거부 운동의 확산은 건전광고대상사와 계약을 체결하나 광고에 대한 학교측과 인식의 차이로 91년도까지 때때로 학기 초 2~3주의 배포중지를 당하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91년 6월 3일 '정원식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학교는 일대 발집이 되면서 30여명의 학생들이 수배되었다. 외대학보 역시 당시 편집장 겸 전대기원(전국 대학신문기자연합회)의장이었던 최원일 군과 학재처장이었던 박재준 군도 사건에 연루되면서 학보사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 2학기 때 사실검정의 주간교수 전담, 주간교수 검열과 지사에 복종, 기자지적 학원 적용 등의 강압적인 학교측의 탄압으로 겨우 1년의 신문을 발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98년 학내 구성원들의 힘으로 끌어낸 박승준을 비롯한 구제단 세력, 외대의 막구들을 건어내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서울배움터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웅인배움터에서는 학외투쟁에 더 많은 신장을 쓰고 있었다. 이에 외대학보는 투쟁의 흐름을 한 곳으로 모아 박승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공동투쟁 촉구기사를 계속적으로 다뤘다.

진리, 평화, 창조와 교사에겐 정권직 필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향해 매진해온 외대학보, 외대의 화노애락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쓰러진 상처투성이었던 이 시대상을 기록하는 기록지로서의 외대학보가 45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아직 독자들에게 애정 어린 비만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학보이기에 외대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고 역사적인 사명을 다해야 하는 고뇌를 멈추지 않고 있다.

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98년 학내 구성원들의 힘으로 끌어낸 박승준을 비롯한 구제단 세력, 외대의 막구들을 건어내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서울배움터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웅인배움터에서는 학외투쟁에 더 많은 신장을 쓰고 있었다. 이에 외대학보는 투쟁의 흐름을 한 곳으로 모아 박승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공동투쟁 촉구기사를 계속적으로 다뤘다.

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98년 학내 구성원들의 힘으로 끌어낸 박승준을 비롯한 구제단 세력, 외대의 막구들을 건어내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서울배움터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웅인배움터에서는 학외투쟁에 더 많은 신장을 쓰고 있었다. 이에 외대학보는 투쟁의 흐름을 한 곳으로 모아 박승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공동투쟁 촉구기사를 계속적으로 다뤘다.

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98년 학내 구성원들의 힘으로 끌어낸 박승준을 비롯한 구제단 세력, 외대의 막구들을 건어내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서울배움터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웅인배움터에서는 학외투쟁에 더 많은 신장을 쓰고 있었다. 이에 외대학보는 투쟁의 흐름을 한 곳으로 모아 박승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공동투쟁 촉구기사를 계속적으로 다뤘다.

외대학보의 주인, 누군데 누가 함부로 제작중지를 명하는가. 학우들에 대한 월권 행위, 학교당국 각성하라

제작
사진부



45년 동안 걸여온 한 길. 기자들의 정권직립의 역사는 계속 될 것이다.



700호 외대학보 발행을 축하하며. 외대학보를 읽고 출판한 외대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 수많은 외대인들의 손에 쥐어졌을 700호의 신문들을 상각하면 호풍하다.



신문 만들고 싶다. 91년도 1학기 때에는 두달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단식까지 불사하며 학교측에 대항하여 광고투쟁을 벌였다. 신장적이고 획책적인 광고를 실지 않기 위한 기자들의 요구는 외대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전대기련 방북취재 추진

“올해는 꼭 방북취재 성사!” 청년기자들의 바쁜 발걸음

전대기련 방북취재, 국가보안법 투쟁의 대정부투쟁으로 귀속될 것으로...

99년 본보에서는 전대혁신문기자연화와 함께 당시 총장(조규홍)과 주간교수의 방북취재를 얻고 통일부에 접수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실질 성취에는 이르지 못했다. 2000년, 2년전과는 또 다른 남북 유화국면에서 본보는 다시 방북취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이번 특집에서는 전대기련의 방북 취재 역사에 대해 대략보고자 한다.

원필주 주

금단의 땅,
그러나 한뼘쯤, 한민족이 살고 있는 곳

누구나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북녘땅,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 본민의 정박을 허물고 7천만 민족의 통일 새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년기자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바쁘다.

대학신문기자들의 끊임없는 방북취재의 움직임은 통일운동 역사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1991년 본단 이후 최초로 민간인 회담을 성사시킨 새대기련(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 방북취재는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전대기련 방북취재 사업의 초석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본단의 상징인 관문 앞에서 열린 전대기련 방북취재 상사를 위한 청년학생 실무회담은 7천만 겨레의 통일열의를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민간통일운동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99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이후 전대기련 방북취재는 91년의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진행해 방북취재 공동기자단 합속을 진행하는 등 2천기자의 통일열의를 민방에 알리는 과정이었다.

통일 대동령이라 자칭한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준다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뜨기 시작했다. 언제나 통일운동 역사와 중심에서 호흡한 전대기련은 김대중 정부의 '민간교류 보장 정책'을 놓치지 않고 전국의 대학신문사 편집국장들이 모이는 전체 대표자 회의에서 방북취재사업을 인준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90년대 가가전엔 집콕의 역사를 증식시키고 다가올 21세기를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픈 청년기자들의 순수한 통일열의의 발로였다. 이후 전대기련의 각 대학신문사에서는 방북취재 상사를 위한 2천기자의 통일인문운동에 비롯한 공동교류, 공동기사, 대학수, 대시민 지자서생 운동들을 통해 4천만 민족, 7천만 겨레의 함께하는 방북취재 사업을 펼쳤다. 이후 전대기련은 방북취재에 필요한 것

자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했음에도 통일부는 방북취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불허를 내렸다.

생명을 담보로 통일을 외쳐야 했던 사대를 지나 통일을 내걸지 않으면 소위 '왕따'를 당하는 시대가 도래한 새기랑, 전대기련 2천기자는 그간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25개 대학신문사에서 방북취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금 방북취재를 추진했다. 전대기련 방북취재가 제 사외단체들의 지지를 받으며 곳곳에서 지지성명을 보내주는 등 방북취재가 전대기련만의 통일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입증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전년도와 논리를 펼치 또다시 불허를 내려 더 이상의 통일대동령이기를 거부함을 민방에 알렸다. 10대이던 강진도 변명하더니 예나 지금이나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는 통일부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모아 2천기자들은 선별교류 정책 및 청구 단일화 논리의 허구성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선전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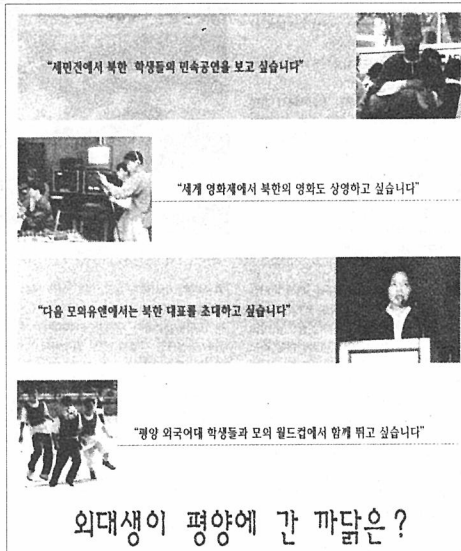
2000년 전대기련 방북취재, 시대적 과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

전대기련 방북취재 역사는 이처럼 역대정권의 광복한 탄압과 이해관계가 존재 속에서도 4천만 민족, 7천만 겨레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10여년동안 벌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2000년 전대기련 방북취재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당면한 정세 속에서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

현정세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민간단체의 자주교류의 원로가 물결치고 통일이 더 이상의 선택은 용어가 아닌 국민들 하나하나의 가슴 절절한 요구로 귀결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90년대 중반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일운동은 남, 북, 해외 3개가 동시에 벌이는 전민족적 운동이며 지난날 투쟁의 과정임을 입증했



외대생이 평양에 간 파답은?

다. 대표적으로 95년부터 97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범민족 대회 이외의 또다른 통일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통일운동내에서의 분열과 대립의 역사가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이나 98년 99년을 걸쳐서 남한에 통일운동은 3자연대 통일운동의 구상인 범민련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과 전국연합, 민주노총을 비롯한 광범위한 연대연합이 실현되어 민족민주운동전선의 단결의 역사가 새롭게 발현되는 성과를 낳았다.

90년대 하반기부터 눈에 띄는 사항은 남북간의 민간교류가 붐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98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지난 남북 대중음악제와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통일 농구대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남북간의 새로운 자연선연 행위로 정립되고 있다고 보이고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통일을 향한 민족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올해 민간 자주교류 또한 지난해에 이어 광범위한 교류의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9년 8월 8일 대회 때 한 자만 2만 8천 명인 8차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00년 통일 대추진 11차 범민족 대회'라는 명칭으로 다수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대학 학술대회와 전남대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에서 과파생회가

단순히 '젊은 학자'에서 나오는 모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이 통일의 작은 주춧돌이 된다는 데에도 방북취재 사업을 남한 사회의 통일운동에 기여하고 있다.

2천년 전대기련 방북취재는 민간급 자주교류의 차원 뿐만 아니라 실제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과정으로 귀속될 것이며 김대중 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간의 통일운동전선에 대한 광범한 단결의 과업을 심판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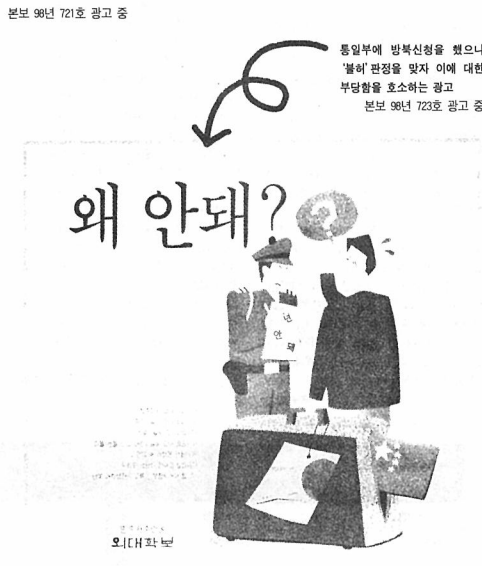
조국통일의 전향적 국면을 만들 올해, 전대기련은 앞으로 조국의 통일의지를 높이고 민족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북취재 사업을 더욱 다져 나갈 것이다.

전대기련 방북취재 추진위원회



평양의대생 기발한 무엇이 들어있을까?
각종 서적, 사진, 노트...
우리의 발만 다치지 않을 북한 대학생들의 삶의 모습을 취재하고 싶다!

본보 98년 723호 1면 회보 중



방북인사①- 가수 안지현씨를 만나

민족애를 바탕으로 한 젊은이들의 만남



가수 안지현

"남북이 갈라져 50년을 넘게 다른 체제 아래 살았어도 노래에 대한 생각 하나는 같더라. 민민들의 삶의 활력이 되는 노래야 한다면'는 북한 가수들의 이야기에 나 역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지난 해 12월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음악제에 참가한 안지현씨의 말이다. "민족통일음악제 9일째를 평양에 머물렀지만 사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접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안씨는 자신이 겪은 본 북한은 폐쇄된 사회, 잘못된 사회라고 전했다. "경제적 어려움, 에너지 등 직접 눈으로 보며 실제 내가 확인하는 것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39년간의 평양방문에 있어 젊은 시 간이없고 다 보아질 수 없는 그런 사회였기에 그렇게 많은 것을 느끼거나 보고 오지 못해 많은 이야기를 못해준다는 안씨는 또한 얼마 전 전대대 학생들과 함께 금강산을 다녀왔다고 한다.

"금강산이 아름다운 것만 아름다운 세계였다. 그리고 금강산에 있다는 것, 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렇게 금강산 관광도 가고, 노래도

부러지고 또 농구시합도 해와 오고 이렇게 한두번만 오고가는 시간 속에 통일에 대한 생각을 현실적으로 옮겨놓고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며 안씨는 이런 교류의 과정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통일에 대한 여러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 방북 취재와 관련, 안씨는 "북한에 갔을 때 주원환씨가 김일성대학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희망했지만 만나지 못해 아쉬웠다. 어떤 체제, 사상을 떠나 남북의 대학생들이 만나 학문을 이야기 하고 문화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좋은 점인 것 같다"며 "북한 대학생들과 이야기하고 문화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좋은 점인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사람과 이야기하면 정말 말 앞에서 느끼는 서로의 따뜻한 마음, 민족애를 절실히 느낀다. 그런 민족애를 바탕으로 한 방북취재를 통한 만남에는 많은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1@hanmail.net

방북인사②- 전국연합 방북대표 강형구씨를 만나

“통일신심 일으킬 수 있는 방북되길”



전국연합 강형구 대표위원장

작년 8월 강형구 대표위원장을 포함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대표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북본부대표 5명은 평양에 다녀왔다.

민족통일대단결이 본래의 되는 시기였던 작년 8월 강형구씨는 당시 전국연합 부대변인의 자격으로 문익환박사 회고모임을 용정에서 갖고 민족대토론회에 참여한 중국을 통해 북에 들렀다가 9월 2일 귀국을 통해 돌아왔다. 물론 남으로 건너오자마자 국가정보원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다.

"민족대토론회는 민족의 자주와 대대권을 위해 남과 북, 해외교류가 함께 모여, 통일에 대해 토론하는 역사적인 자리였지만, 우리 정부는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까지 않았다"며 강씨는 정부의 통일외교 지름을 비판했다.

"최대 한발짝으로 가기 위해 통일부에 반북선정을 하는 등의 노력을 받았지만 결사항전의 민간교류만을 허용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결국 구속을 감내해야만하게 만들었다"고 북에 다녀온 과정을 얘기하는 강씨는 1990년대

마지막으로 열리는 8.15 범민족통일대추진에 남북대표단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북에 갔었다.

한편 강씨는 아무런 무리 해도 '사태'에 대한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통일에 대한 열정과 남한 대표단을 대하는 모습들에서 보여진 민민들은 또한 민족자긍심이 높아 같은 민족으로서 자랑스러워하게 했다고 한다. 이후 북에서 온 북측대표단이 우리를 방문하면 어디의 무엇을 소개시켜 줄 것인가가 고민이 된다고 한다.

"김씨의 관문에서조차 '남한은 통일의지'라며 우리의 통일운동을 인정하는 정부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강씨는 연연히 국가보안법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작년 2월 15일 집현당으로 출소했다.

결론으로 강씨는 방북취재를 추진하는 외대대에 "기다려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되 통일의 신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북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지"가 된 것이라며 기본적인 민족주의 의리에서 시작하는 방북취재가 되기를 당부했다.

학술부